

“저에게 하느님과의 관계는 개인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큰 주제입니다. 그래서 영화에 그 요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동기를 잃게 됩니다.”

마츠모토 준페이(Jumpei Matsumoto)가 영화 "나가사키: 섬광의 그림자 속에서"를 개봉했다.

2025-11-3

마츠모토 준페이(1984년 니시소노기)는 일본의 영화 감독이다. 나가사키현에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기독교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. 오푸스데이 계열의 '세이도 미카와다이' 중학교, 도쿄 대학 공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했다.

2025년 영화 "나가사키: 섬광의 그림자 속에서"를 개봉했다. 1945년 여름, 원폭 투하 직후의 나가사키를 배경으로, 의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 명의 젊은 간호학생들이 사망 위험에 직면하며 피해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한 달을 그린다. 이 영화는 10월 31일 바티칸에서 상영되었다.

최근 인터뷰에서. "자신의 영화가 항상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하셨

습니다. 가톨릭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, 당신의 영화는 개인적 신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나요?"

"영화에 제 신앙이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, 저의 갈등과 의심, 내면의 고통, 그리고 기쁨까지도 자연스럽게 작업에 담게 됩니다. 영화를 만들 때면 어쩔 수 없이 제 삶과 가치관이 반영되죠.

캐릭터와 주제를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없다고 느낍니다.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.

저에게 하느님과의 관계는 개인으로서 삶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. 그래서 영화에 그 요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동기를 잃게 됩니다. 제 캐릭터 대부분은 신앙인이 아니지만, 신앙이 있든 없든 그들이 초월적인 무엇인가를

만나는 순간을 포착하려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제 영적 삶은 영화에 꽤 생생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.”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<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jeoege-singwayi-gwangyeneun-gaeineuroseoyi-salmeseo-gajang-keun-jujeibnida-geuraeseo-yeonghwae-geu-yosoga-pohamdoeji-anheumyeon-donggireul-ilhge-doebnida/> (2026-1-15)